06 ★이슬람 세계의 팽창

☐ 제국 (1299~1922)

성립·발전

- 튀르크 계통의 ☐족이 아나톨리아에서 건국(1299), 비잔티움의 크리스트교 연합군 격파 → ☐ 반도 장악, 술탄 칭호 사용
- ☐ 2세[재위 1451~1481, ☐ 점령(비잔티움 정복, 이스탄불 개칭, 1453), 유프라테스강 상류 진출]
- ☐ 1세[재위 1512~1520, 찰디란 전투(⇔ 사파비 왕조), 마르즈 다비크 전투(☐ 왕조 정복, 메카·메디나 장악), 술탄·칼리프 제도]
- ☐ 1세(재위 1520~1566)
  - : 모하치 전투[☐ 정복(1526)], ☐ 포위 공격·실패(1526~1529), 바그다드 점령(1533), 프레베자 전투(1538)

    에스파냐, 베네치아 등이 가담한 유럽 연합 함대와 ☐ 제국의 함대가 프레베자 근해에서 충돌하였다. 이 해전에서 ☐ 제국이 승리를 거두고 ☐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 바부르 지원(1526), ☐ 제후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제안(1552), 법령 정비와 법전 편찬, 예술 분야 후원

    ☐ 1세의 별명은 두 가지이다. 먼저 서양인들은 그를 '장엄왕'이라 부른다. 그가 실시한 원정의 대부분이 유럽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헝가리 정복과 빈 포위가 서양인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두려움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 1세를 '☐'이라 불렀다. 그의 치세 때에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이슬람법이 정비되어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중앙의 통치력이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셀림 2세[재위 1566~1574, ☐ 해전 패배(⇔ 에스파냐 ☐ 2세, ☐ 제해권 상실, 1571)]

통치

- ☐ 제도[군정관·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 부여], ☐ 제도(발칸 반도의 크리스트교도 소년 징집), ☐(술탄의 친위 부대, 1330~1826)와 시파히(기갑 군단), ☐ 제도(인두세 납부 조건으로 이교도의 종교 공동체 인정)

문화

- 톱카프 궁전, 술레이마니예 사원(1557), 술레이만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튀르크 궁정 문학 발달, 세밀화 유행

  제국의 사회는 지배층인 아스케리와 피지배층인 레아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었다. 아스케리는 고위 관리들, 티마르 소유자들, 정규군·비정규군 등 다양한 무장 군인들을 포함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아스케리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정부 내 각료에 임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지배층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술탄은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톱카프 궁전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귀족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족 가문과 혼인하지 않았다.

맘루크 왕조

- 맘루크(용병)가 성립(1250), 아이유브 왕조에 이어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 통치, ☐ 격퇴(메카·메디나 보호), ☐ 제국에 멸망(1517)

☐ 왕조 (1370~1507)

- ☐[재위 1370~1405, ☐ 부활 표방, ☐(수도), 7년 원정(1392~), 다마스쿠스 점령(⇔ 맘루크 왕조), 델리 술탄 왕조 침공(1398), 앙카라 전투 승리(⇔ ☐의 술탄 바예지드 1세 생포, 1402), 명 원정 도중 병사], 샤 루흐[3, 재위 1409~1447, 명과 화친 추구], ☐인에게 멸망
-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사막길의 중간 기착지)], 튀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융합, 세밀화, 천문학 발달

☐ 왕조 (1501~1736)

- 이스마일 1세(재위 1501~1514)
  - : 타브리즈(이란 지역, 수도), 페르시아 제국 계승 표방, ☐ 이슬람교(국교), 군주 칭호 '샤' 사용, 찰디란 전투 패배(⇔ 오스만 셀림 1세, 1514)
- 아바스 1세(재위 1588~1629)
  - : ☐ 천도(1597), 이맘 광장 건설(1599~), 이맘 모스크 건축, 군사력 강화, 비단 산업의 국유화, 크리스트교 포교 허용
- 수니파 국가인 ☐ 제국과 대립,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족의 침입으로 멸망